

외부화면 키워 답답함 줄이고 방수·방진 기능에 'S펜' 추가

삼성 '갤럭시 폴드2' 예상스펙

8월 언팩행사, 9월께 출시할 듯
후면 카메라 3개, 전면 2개 탑재
프리미엄·라이트 2개모델 예상

올해 8월 삼성전자가 세번째 폴더블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2(가칭)'를 공개 예정인 가운데 외신을 중심으로 예상스펙이 속속 나오며 관심이 뜨겁다.

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2는 오는 8월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노트20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출시 시는 9월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망 문제가 생길 경우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IT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2 양산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주문했고 조만간 대량생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갤럭시 폴드2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 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다. 갤럭시 폴드는 7.3인치 화면이었는데 갤럭시 폴드2는 7.59인치 혹은 7.7인치의 화면을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Z플립에 사용된 UTG(초박막강화유리)를 사용한다.

전체 화면을 접었을 때 외부에 위치한 화면도 기존 4.6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갤럭시 폴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가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외부 화면만으로도 기존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최초로 S펜을 넣



갤럭시 폴드2 렌더링 이미지.

/벤 게스킨

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펜이 들어간 폴더블폰 특권을 출원한 바 있다.

카메라는 후면에 3개, 전면에 2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갤럭시 폴드2 후면에 기존에 나왔던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IT 매체 폰아레나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플러스의 카메라 모듈을 기본, 망원, 초광각 카메라와 함께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갤럭시 폴드2의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더블폰 최초로 방수와 방진 기능을 갖출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와 5000mAh로 접혀진다. 대화면의 기기인 만큼 5000mAh를 채용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S펜이 들어간다면 S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배터리 용량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저장용량은 256GB와 512GB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처럼 기능을 개선한 갤럭시 폴드2가 등장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는 기대

하는 모습이다. 1세대 폴더블폰을 구매하기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갤럭시 폴드2를 프리미엄 모델과 라이트 모델 등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갤럭시 폴드2 상위 모델 가격은 1세대 모델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가격이 대폭 낮아진 라이트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최초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고, 올해 2월 갤럭시Z플립을 출시했다.

특히 갤럭시Z 플립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출시 후 약37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매체 샘바일에 따르면 갤럭시Z 플립의 3월 글로벌 판매량은 2월 판매량인 14만7000대에서 56.1% 늘어난 23만대를 기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수출액 348.6억 弗... 전년비 23.7% 급감

산업부, 5월 수출입동향

수입액 344.2억 달러... 21.1% ↓
무역수지 4.4억 달러 '흑자전환'

5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급감했으나,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다. 무역수지도 1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돼 수출이 부진하지만,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348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7% 급감했고, 수입도 344억 2000만달러로 21.1% 줄어 무역수지는 4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무역수지 13억 9000만달러 적자에서 1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5월 수출은 4월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급감했고, 조업일 부족 등으로 감소를 이어갔으나,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다. 원유(-68.4%)·석탄(-36.1%)·가스(-9.



1%)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가 5월 전체 수입하락을 주도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167.8%) 등 반도체 관련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적자가 발생한 전달과 비교해 수출에 비해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 수입 중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원유(-12억달러)로 도입 단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체 수입은 크게 감소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자본

재 수입이 9.1% 증가해 우리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수출부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시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대 중국 수출 규모는 한자릿수대 감소(-2.8%)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미국(-29.3%)·EU(-25.0%)·아세안(-30.2%)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품목은 수입국의 경기변동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동차(-54.1%), 차부품(-66.7%), 섬유(-43.5%) 등이 수출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3개 품목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불과하지만, 5월 전체 수출 감소분(-108억5000만달러)의 36.5%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과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며 큰 폭으로 하락(-69.9%)했다.

/한수수 기자 hys@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일 대구 본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 4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국가경제 위기상황' 신보, 역할 공유

신용보증기금 창립 44주년 기념식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본점에서 44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신보는 이날 행사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신보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캠페인'을 통해 반부패와 청렴의지도 공고히 했다.

신보는 이번 창립기념식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위기극복의 DNA를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을 살리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정부, 1분기 공적자금 117조 69% 회수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3월 기준 69.3%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적자금 168조 7000억원을 지원했으며, 3월 말 현재 116조 8000억원을 회수해 69.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5년 말 66.2%, 2016년 말 67.8%, 2017년 말 68.5%, 2018년 말 68.9%, 2019년 말

69.2% 등으로 최근 5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두차례에 걸쳐 총 168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 정부는 공적자금 361억원을 반환했다.

케이알앤씨(KR&C)가 보유중인 파산채권을 회수해 335억원을 반환하고, 한화생명의 배당금으로 26억원을 회수한 결과다. /나유리 기자 yul115@

광화문글판에 '정지의 힘' 메시지

교보생명, 8월 말까지 게시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여름편'을 백무산 시인의 시 '정지의 힘'에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멈춰있는 것 같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씨앗처럼, 누구에게나 도약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백무산은 인간 존재의 근원과 노동의 가치를 성찰해온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글판 디자인은 역동적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통해 문안과 대비를 이루며 멈춤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글판은 오는 8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고단한 현실이지만 잠시 쉬어가며 주변을 돌아보는 '정지의 시간'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자



1일 시민들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편'이 내걸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주변을 걷고 있다. /교보생명

는 의미에서 이번 글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30년을 기념해 '내 마음 속 광화문글판은?'이라는 주제로 6월 한 달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역대 광화문글판 중 지난 30년간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문안을 선정해 보고, 글판의 여운과 감동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다. /김희주 기자